

나카에 조민의 『삼취인경륜문답』 다시 읽기*

- 자유·도의·혁명을 둘러싼 문답과 민주주의 비전

이 예 안**

[국문초록]

나카에 조민의 『삼취인경륜문답』(1887)은, 기존 연구에 따르면, 3인의 등장인물인 양학신사, 호결군, 남해선생을 통해 서구문명의 제국주의에 대한 소국 일본의 독립 방안으로 평화주의, 침략주의, 중립외교라는 세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이에 대해 본고는 우선 3인의 등장인물 각각을 『삼취인경륜문답』 집필 시점에서 볼 때 실제 조민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분신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3인의 논의에 대해서는, 조민이 일련의 시간 경험상에서 상대적으로 과거의 자기 사상에 대해 가한 비판인 동시에, 각 시점의 조민이 당시의 자기 사상에 대해 가한 비판을 내포하는 자기비판의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읽을 때, 조민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자기비판을 거듭 가하며 논리묘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논의를 지속시키고 있는 지점이 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1).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주제어: 나카에 조민 『삼취인경륜문답』, 자유, 도의, 혁명, 문명, 민주주의, 은사적 민권
Nakae Chōmin's *A Discourse by Three Drunkards on Government*, liberty, morality and righteousness, revolution, civilization, democracy, given rights

상한다. 그때 이 책의 핵심 논제는, 근대 일본이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도정에서 자유, 도의, 혁명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가면 좋은 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인의 격론 끝에 ‘혁명적 자유’ 대신 제시된 ‘은사적 민권’은, 근대 일본에서 자유 개념이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이러한 자유 개념이 이후 일본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때 얼마나 뿌리 깊게 작동해 왔는지를 생각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1. 머리말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의 『삼취인경륜문답』(三酔人經綸問答, 集成社書店, 1887)은 제목이 말해주듯, 3인의 등장인물이 술잔을 기울이며 국정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양학신사와 호결군이 ‘세상의 형세’에 관한 남해선생의 생각을 청하여 듣고자 방문하여 3인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엄밀한 의미의 ‘문답’ 형식은 아니며, 양학신사, 호결군, 남해선생이 차례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도중에 수시로 나머지 두 사람이 호응 또는 비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¹⁾ 각 인물이 주장하는 논지는 일견 명확하다. 서구문명의 제국주의에 대한 소국 일본의 독립 방안으로 양학신사는 민주제와 도의주의, 평화주의를 주창하며, 호결군은 군주제와 대륙침략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남해선생은 입헌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과 중립외교를 제안한다.

그런데 조민이 『삼취인경륜문답』의 초고를 지참하고 평소 친분이 있

1) 마루야마 마사오는 등장인물 3인의 논의에 대해 문답체가 아니라 3인 각자의 주장이라고 지적한다(丸山真男(1977), 『日本思想史における問答体の系譜』, 『中江兆民の世界』(木下順次・工藤文夫 編), 筑摩書房, p. 198). 또한 마에다 아이는 작중인물들의 논의가 전개되는 형식이 아님을 지적한다(前田愛, 『『三酔人經綸問答』のテキスト構造』, 松本三之介, 松沢弘陽, 溝口雄三, 松永昌三, 井田進也 編(2001), 『中江兆民全集』 月報, 岩波書店, pp. 79-80). 『中江兆民全集』은 이하 『全集』으로 표기한다.

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를 찾아갔을 때, “재미있군. 그러나 초자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 걸. 아무래도 『미인의 기구한 운명』(佳人之奇遇)만큼은 팔리지 않을 걸세”라는 평가를 받는다.²⁾ 그 예견대로 『삼취인경륜문답』은 조민의 동시대에는 널리 읽히지 않았던 듯하다. 1887년 5월 초판이 간행된 이후 재판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다른 출판사에서 재간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³⁾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노우에가 이 책을 ‘재미’있다고 하면서도 ‘난해’하다고 평가한 부분이다. 그는 이 책에는 문면에 드러난 기본 논지 이상으로 그 이면에서 읽어내고 생각해야 할 함축적인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노우에가 지적한 ‘재미’와 ‘난해’,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독해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삼취인경륜문답』이 근대일본사상 연구의 기본서 중 하나로 손꼽히며 거듭 읽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3인의 등장인물의 입장은 조민의 세 가지 측면의 정치사상을 피력한 것이며 이로써 근대일본의 주요한 사상조류 및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⁴⁾ 또한 3인의 등장인물 각각에 논리 모순이 있으며, 이는 조민

2) 徳富蘇峰, 『妄言妄聽』, 『國民新聞』 1895年 12月 13日; 『全集』 別卷, pp. 209-310. 『삼취인경륜문답』의 출판에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역할이 컸다. 소호는 잡지 『國民之友』 창간에 즈음하여 조민에게 기고를 부탁하여, 3호에 『醉人之奇論』을 게재했다. 그 글은 『삼취인경륜문답』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 그 후 조민이 『삼취인경륜문답』을 완성하자 원고를 들고 함께 이노우에 고와시를 방문한 것이다.

3) 松沢弘陽, 井田進也, 『解題』, 『全集』 第8卷, p. 337.

4) 우에테 미치아리는 『삼취인경륜문답』에 관한 주요 해석으로 남해선생을 조민으로 보는 해석과 등장인물 3인을 조민의 분신으로 보는 해석을 언급하면서, 우에테 자신은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며 “신사군, 호결군, 남해선생은 각각 조민의 원리주의자, 권력자, 현실주의자라는 측면을 대표한다”고 말한다(植手通有(1977), 『中江兆民における民権と國權』, 『中江兆民の世界』, 筑摩書房, pp. 74-77). 한편, 이다 신야는 등장인물 3인의 분신설에 관하여, 1887년 당시 조민의 실제 생활이 대체로 “남해선생 류”였음을 지적하고, 신사군의 모델로 고모지 사부료(光明寺三郎), 이마무라 가즈로(今村和郎), 이즈카 오사무(飯塚納) 등 조민의 프랑스유학 시절의 지인들을, 호결군의 모델로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을 비롯한 당시 불학숙(仏學塾)에 모

의 내적 갈등 및 자기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⁵⁾

이러한 선행연구의 평가에 대해 본고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삼취인경륜문답』의 핵심 논지를 여전히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3인의 등장인물의 입장이 조민사상의 세 측면과 일 대 일로 단순하게 대입된 것이 아니며 또한 때때로 논리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책의 주제에 관해서는 평화주의, 침략주의, 절충주의라는 확고한 세 가지 입장을 둘러싼 논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논리 일탈을 초래하고 논리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계속하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읽을 때, 이 책의 주제는 새롭게 부상한다. 즉 ‘문답’의 논제는 정치체제와 외교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상적 근거이자 실천적 요소로서 자유, 도의, 혁명을 둘러싼 문제에 관련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삼취인경륜문답』의 등장인물들과 조민사상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 책의 사상 구조를 확인해 두자(2). 이어서는 이 책의 기본 논지로서 양학신사의 민주제 주창과 호걸군의 대륙침략론을 살펴 보면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도의’와 ‘문명’에 관한 이해의 차이와 접점

었던 소시(壯士) 무리들을 언급하면서, “3인의 논객이 각각 조민의 분신”이라고 본다(井田進也(2000), 『『東洋のルソー』中江兆民の誕生』, 『中江兆民のフランス』, 岩波書店, pp. 211-215).

- 5) 구와바라 다케오는 “3인 각각을 조민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조민이)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내적 갈등이 있었으므로 비로소 『삼취인경륜문답』이 탄생했다”고 말한다(桑原武夫, 島田虔次 訳法(1999), 『三酔人經綸問答』, 岩波文庫, pp. 264-265). 한편, 마에다 아이는 “신사군의 민권론과 호걸군의 국권론을 절충한 남해선생의 점진적 개량책”이라는 기제야말로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그 안에서 신사군과 호걸군은 표리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前田愛(2001), pp. 79-80). 또한, 이러한 3인의 변론에 대해 우에야마 슌페이는 테제, 안티테제, 진테제의 3단계로 파악했다(上山春平(1983), 『兆民の哲学思想』, 『中江兆民の研究』(桑原武夫 編), 岩波書店, pp. 54-55).

을 살펴본다(3).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등장인물이 자신의 논지를 착종시키면서까지 집요하게 논의를 계속하는 ‘자유’와 ‘혁명’은 어떤 것인지, 이를 통해 민주주의 실천에 어떻게 접속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자(4, 5).

2. 『삼취인경륜문답』의 사상구조: 자기비판의 중층구조

『삼취인경륜문답』의 등장인물 3인과 조민사상의 관련 여부에 관해서는 조민의 동시대에 이미 다양한 해석이 나와 있다. 예컨대 “과장하기 좋아하는 군비확장론자”와 “단순한 이론을 추종하는 민권론자”의 극단적인 두 논의에 대해, “저자 자신이 중간 위치”에 서서 그 “기본 논의”를 설파하는 데 본서의 취지가 있다고 평가된다.⁶⁾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조민선생일 터인 남해선생의 “극히 평범”하며 “3백 정객 다반사에 불과한” 논의에 실망하기 전에, 그 안에 발휘된 조민선생의 뛰어난 솜씨를 읽어낼 것을 촉구하는 논평도 있다. 즉 남해선생의 “화신”이 2명의 객인 바 선생의 “철학적 분자”가 양학신사이며 선생의 “영웅적 원소”가 호결군이 되었으니 선생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양학신사와 호결군의 주장을 합친 곳에 바로 남해선생 즉 조민선생의 탁월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다.⁷⁾ 더 나아가 이 책의 논의가 제대로 된 정치론이 아니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⁸⁾

『삼취인경륜문답』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논평이다. 슈스이는 이 책의 간행 당시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6) 『國民之友』 3号 1887年 4月 15日, pp. 22-27. 『醉人之奇論』의 게재를 알리는 소개문 중.

7) 『國民之友』 5号 1887年 6月 15日, pp. 38-41.

8) 高橋五郎, 『政事家漫評』, 『國民之友』 8号 1887年 9月 15日, pp. 26-30.

『삼취인경륜문답』이 구 집성사에서 발간되었을 때 선생님은 자평하여 말씀하시길, “이는 한때 유희삼아 쓴 작품으로 심히 유치하니 볼 것이 못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읽어보니 “중횡무진 많이 생각을 거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선생님의 천재성이 발휘되고도 남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물, 사상, 본령을 아우르며 충분히 활약시키는바 생각건대 이 책만한 게 없다. 그 촌철살인의 경구(警句), 냉매입골(冷罵入骨)의 묘어(妙語)가 지면에 끊이지 않으니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듯했다.”⁹⁾

조민은 『삼취인경륜문답』이 “한때 유희삼아 쓴 글”이며 제대로 된 글이 아니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슈스이는, 뜻 가는 대로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 문장 안에 바로 조민선생의 인물과 사상의 본령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다고 평한다. 즉 슈스이는 등장인물 3인의 주장 모두를 조민의 사상으로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조민사상의 본원의 모습을 인정하고자 한다.¹⁰⁾

이러한 슈스이의 이해와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그 이해를 한발 더 진전시켜 가장 정확하게 논평한 것이 소호다.

『삼취인경륜문답』은 조민군의 서정시다. 삼취인을 살펴보면 조민 거사 한 사람의 분신이다. 조민 선생의 본령을 알고자 한다면 이 저서만한 게 없다. 삼취인이 영겨서 격투하는 것은 모두 하나같이 선생의 한 몸 안에서 영키고 격투하는 것이니, 요컨대 선생의 뇌리

9) 幸德秋水(1902), 『兆民先生』, 博文館; 『全集』 別卷, p. 467.

10) 한편 슈스이는, 자유평등을 주창하는 조민을 “혁명사상의 고취자”, 동양학관 시절의 조민을 “혁명의 책사”로 호명하고, 만년에 사업 실패 이후 음주를 일삼던 조민을 남해선생과 중첩하여 봤다. 남해선생이 취한 모습의 묘사를 가리켜 “아마도 선생님 자신을 묘사한 것으로 실재와 흡사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남해선생의 “은사적 민권”과 “회복적 민권” 주장을 조민의 주장으로 이해했다(幸德秋水(1902); 『全集』 別卷, p. 452).

에는 항상 수많은 반대 요소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¹¹⁾

소호는 양학신사, 호결군, 남해선생의 등장인물 3인 모두를 조민사상의 구현으로 이해하면서, 이 삼취인의 주장을 종합한 것이 바로 조민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등장인물 3인의 대립을 조민 내부의 사상적 갈등이라고 이해하면서, 조민사상의 내부에는 항상 모순되고 길항하는 측면들이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삼취인경륜문답』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상과 같은 동시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3인의 등장인물의 주장이 조민사상에 기인한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 가운데 양학신사와 호결군은 조민이 자신의 이상과 현실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남해선생은 그 두 인물을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절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조민이 저자명을 “남해선어”(南海仙漁)라고 쓰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남해선생이 현실의 조민에 가장 근접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주제에 관해서도 전술했듯이, 서세동점 하에 소국 일본의 생존여부라는 현실 문제를 둘러싸고, 도의주의 민주제와 평화외교(양학신사), 군비확충에 의한 대륙정벌(호결군), 입헌군주제와 중립외교(남해선생)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는 데 대개 일치하고 있다.¹²⁾

이에 대해 본고는 우선, 등장인물들의 세 입장을 조민의 실제 시간선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상과 경험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양학신사, 호결군, 남해선생 각각에게 「논외교」(論外交)에서 도의주의를 주창한 조민, 현양사시절 그리고 『삼취인경륜문답』 집필 당시의 조민의 모습을 투영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민의 실제 경험과 등장인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 문제를 텍스트

11) 德富蘇峰, 1895年 12月 13日; 『全集』別卷, p. 210.

12) 植手通有(1977), p. 77 이하; 松永昌三(1993), 『中江兆民評伝』, 岩波書店, p. 184 이하 등.

의 구조와 연관시켜 지적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우선, 조민이 『민약역해』(民約譯解)와 『논외교』에서 도의주의를 표명한 1882년, 현양사에 가담한 1884년,¹³⁾ 『삼취인경륜문답』 집필 당시인 1887년의 자신을 모델로 하여 의식적으로 구현화한 것이 양학신사, 호결군, 남해선생이라고 상정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면, 조민의 실제 경험 순서가 『삼취인경륜문답』의 구성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구성은 기본적으로 양학신사에 의한 변론이 앞부분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며, 호결군에 의한 변론이 다음 약 30퍼센트, 남해선생에 의한 총괄이 마지막 20퍼센트 가량을 차지한다. 즉 양학신사의 변론 내용을 주축으로 하여 이에 대해 호결군이 비판하면서 논의를 개진하고, 마지막으로 남해선생이 이 두 사람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의견을 내놓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열띤 토론에 무아지경이던 양학신사와 호결군은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허룻밤이 지난 것에 놀라 자리를 뜨려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남해선생은 두 사람이 방문한 이후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는 벌써 두 번째인데, 각자 귀가해 보면 2, 3년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될 터라고 알려주며 웃는다.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하여 『삼취인경륜문답』의 시간을 현실의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른바 우라시마 다로나 모모 다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선계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⁴⁾ 그런데

13) 선행연구에서도 호결군이 현양사시절 조민의 모습과 근접함을 지적하고 있다. 구와바라 다케오는 “호결군에 주목하면 조민과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의 관계가 생각난다”고 서술한다(桑原武夫(1977), 『兆民への近接』, 『中江兆民の世界』, 筑摩書房, p. 35 이하). 또한, 마쓰나가 쇼조는 조민의 현양사 시절을 언급하면서 “『삼취인경륜문답』에서 호결군의 방책은 그들 현양사 인사(人士)들과의 교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松永昌三(1993), p. 157).

14) 内田義彦(1977), 『ユートピア物語としての『三酔人経綸問答』』, 『中江兆民の世界』, p. 244 이하; 前田愛(2001), p. 80.

3인의 논의를 실제의 과거에서 집필 당시까지 전개된 조민의 사상 경험으로 볼 때, 이 책에서 말하는 ‘2, 3년’의 경과는 반드시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선계의 이야기적 장치가 아니다. 이 책이 출판된 1887년으로부터 두 명의 손님이 방문한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때는 1884년에서 1885년 무렵에 해당한다. 이때는 바로 조민이 이전의 도의주의 외교이념의 표명을 거쳐 현양사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렇게 보면 3인이 논의를 시작한 ‘2, 3년’ 전은 현실의 조민이 사상적 격변을 경험했던 시기이며, 논의를 진행해 온 ‘2, 3년’은 조민이 현재와 과거의 사상적 부정합에 갈등했던 기간과 중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 3인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각 시점의 조민이라고 볼 때, 이 책에서 순차적으로 전개된 양학신사, 호걸군, 남해선생의 논의는 조민 자신이 경험한 시간의 축에 따라 기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책 첫머리를 다시 읽어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조민은 술을 마시는 데 따라 변모하는 남해선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즉, 음주와 정치논쟁을 즐기는 남해선생은 술을 한두 병 마시면 기분 좋게 취하나, 두세 병 더 마시면 정신이 고양되어 사상을 분출시키면서 세계 정치의 방향을 설파한다. 거기에 두세 병 더 마시면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어 팔다리를 휘두르며 인사불성의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두세 시간 자고 나서 정신이 들면 취중에 했던 말과 행동을 까맣게 잊곤 한다. 술을 ‘두세 병’ 더 마시는 데 따라 이상을 설파하는 사상의 모습에서 과격하게 변모해 가는 모습과, 술이 깬 후 취중의 모든 일을 잊고 현실 앞에 무기력한 그 모습이 마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조민의 모습으로서 양학신사, 호걸군, 남해선생을 시사한듯하여 흥미롭다. 또한 동시에 조민선생 즉 남해선생 한 사람이 다양한 사상적 측면을 가지고 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¹⁵⁾

15) 조민은 술을 마심에 따라 변모해 가는 남해선생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슈스이는 이 묘사 부분을 가리켜 “(조민)선생의 취태가 실로 그와 같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삼취인경륜문답』의 구성을 이렇게 실제 조민의 시간 경험에 비추어 파악할 때, 등장인물들의 주장은 각 시점의 조민의 입장 표명이며, 등장인물들 간의 비판은 상대적으로 미래의 조민이 과거의 자기 자신 대해 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조민은 도의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해 온 자신의 모습을 양학신사에게 투영하여 이에 대해 호결군과 남해선생을 통해 비판하는 한편, 현양사 시절의 자신을 호결군에게 투영하여 이에 대해 남해선생을 통해 비판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삼취인경륜문답』의 자기비판이라는 구조는 뚜렷해진다.

이에 더하여 주목하고 싶은 점은, 조민이 양학신사와 호결군 각자의 주장 안에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지향을 내포시킴으로써 각각의 논리의 정합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논리모순을 설정하고 그러한 모순을 되물게 함으로써 등장인물 각자에게 자기비판의 자리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양학신사와 호결군을 이념과 현실로 양극화하고, 남해선생을 양자의 절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자기비판 부분에 주목해 보면, 양학신사는 이상주의를 표명하는 가운데 현실인식을 보이며 호결군은 현실주의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해선생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조민이 ‘얼버무리다’라는 총평을 가한 연유도 추측할 수 있게 된다.¹⁶⁾ 각자의 입장은 이념표명과 현실인식을 교차시키면서 흔들리고 있다. 즉 3인은 때로는 각자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긍정함으로써 자신의 논리에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민은 각 시점의 자신의 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갈등과 자기 비판적 시선을 현재화(顯在化)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⁷⁾

보고 취한으로 여겼다”고 말한다(幸德秋水(1902); 『全集』 別卷, p. 452). 또한 술은 남해선생=조민선생을 현실의 자신으로부터 유리시켜,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과거 자신의 두 얼굴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松永昌三(1993), p. 194.

즉 『삼취인경륜문답』의 구조는 실제 조민의 일련의 시간경험상에서 과거의 사상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각 시점의 자신의 사상에 대한 자기 비판을 내포하는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삼취인경륜문답』을 통해 조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중비판의 구조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읽을 때, 조민이 등장인물들을 통해 자기비판을 거듭 가하고 논리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논의를 지속시키고 있는 지점이 부상한다.

이하에서는, 『삼취인경륜문답』을 조민의 사상적 경험공간이며 자기비판의 중층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때 ‘문답’은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물음을 계속하는 문제 즉 자유, 도의, 혁명을 둘러싼 지점에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책의 기본 논지로 양학신사와 호걸군의 정치외교에 관한 주장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한편 그들의 일견 대립하는 두 입장이 모두 ‘도의’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문명’을 향한 것임을 살펴보자.

-
- 17) 본고의 이해와 가까운 것으로 히지카타 가즈오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삼취인경륜문답』을 조민의 자기비판을 포함한 사상적 총체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삼취인경륜문답』은 조민의 10년대 민권운동에 대한 비판적 총결산이며 그가 무슨 이유로 거기에 자신을 전면적으로 투입할 수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자기증명의 글이며,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의 깊숙한 내면의 모순과 모색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자기비판하면서 전개한 것이었다. 조민 자신이 본문에 첨부한 단평(短評)은 풍자적인 가벼운 촌평의 형태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의 자기 척결의 아픔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土方和雄(1958), 『中江兆民－近代日本の思想家2』, 東京大学出版会, pp. 147-148).

3. 일본의 대(對)서구 독립을 위한 두 가지 방안: ‘도의’와 ‘문명’의 이해

3.1. 민주주의 정신과 동서문명의 역전가능성

양학신사의 변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진화론”(政事的進化の理)에 따라 정체를 전제, 입헌제, 민주제로 구분하고, 각 체제의 정신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¹⁸⁾ 양학신사에 의하면, 전제주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전 불가능하게 하기에 인간을 “정신적 불구”로 만든다. 또한 자신과 타자 사이에 경계선과 적대의식을 생성시켜 지역을 분단하고 지구 주민들 간의 마음을 격리시켜, 최종적으로 군비확장과 전쟁축발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 절반만 개선한 것이 입헌제인데, 이 체제는 자주, 평등, 박애 정신을 알면서도 무력행사를 중지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민주제는 자유, 평등, 박애 정신뿐 아니라 도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⁹⁾ 이 민주제에 대하여 양학신사는 “민주의 제도는 뇌퇴락락(磊々落落)하여 가슴 속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며, “머리위에는 오직 푸른 하늘이, 발아래에는 오직 대지가 펼쳐지니 마음은 초연하고 의기는 활연하

18) 신사군에 의하면 정치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황야”에서 빠져 나와 “정치적 진화의 이법”의 제1단계인 “협소한 계곡의 전제”를 지나 제2단계 “입헌의 쾌활한 언덕”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제3단계인 “비할 데 없는 절경인 민주제도의 산봉우리”로 진화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는 각 단계에 따라, 야만상태인 아프리카, 전제주의를 취하는 아시아, 입헌제를 취하는 대부분의 서양국가 그리고 민주제를 취하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사군의 정체진화론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의거한 것이라는 의견이 통설이지만(米原謙(2001), 『『三醉人經綸問答』を読む』, 『兆民をひらく』, 光芒社, p. 350), 이에 대해 이다 신야는 『삼취인경륜문답』의 전제, 입헌군주제, 민주제 논의를, 조민의 『사회계약론』 제3편 정제론에 관한 이해의 결과로 보고 있다(井田進也(2000)).

19) 『全集』第8卷, p. 218.

다!”고 찬미하여 마지않는다.²⁰⁾ 이러한 양학신사의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찬미에서는, 일찍이 조민이 『민약역해』에서 ‘인의의 자유’(人義之自由, la liberté civile)와 ‘마음의 자유’(心之自由, la liberté morale)를 강조한 것과 상통하는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조민은 『민약역해』에서, 인간은 “자신이 정한 법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제시하고 그 상태에서 획득한 자유의 상태를 “마음이 여유롭다”(心胸綽)고 찬양한 바 있다.

그리고 양학신사는 그러한 민주주의 정신이야말로 군비철폐와 평화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세계 인류의 지혜와 우정을 하나로 연결하여 “일대 원상”(一大圓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이러한 정신 안에 바로 약소국 일본이 생존할 길이 있다는 것이 양학신사의 주장이다. 양학신사는 일본이 그 민주주의 정신의 선구가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문명의 도정에 뒤쳐진 일개 소국이 머리를 들고 아시아의 변경에서 굴기하여 한달음에 자유와 우애의 경지로 도약하여, 보루를 무너뜨리고 대포와 쇠뇌를 녹이고 군함을 배로 바꾸고 병사를 사람으로 바꾸어, 오로지 도덕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업 기술을 강구하여 순연한 철학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명이라며 우쭐대는 서양 각국의 인사들이 능히 양심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혹시 흥폭하고 완고하여 양심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군비를 철폐한 틈을 타서 냉큼 침략해 올 때, 우리가 한 조각의 쇠붙이도 지니지 않고 한 발의 탄환도 장전하지 않고 예로써 맞이한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 휘둘러 바람을 베려

20) 『全集』第8卷, p. 181, p. 207.

21) “원상”(圓相)은 불교용어로, 선종에서 사람의 마음에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원을 말한다. 조민은 선(禪) 수행을 지속했으며, ‘兆民’이라는 호도 법명이다(『雜評』, 『一大活眼』 一號 1889年 6月, 活眼社). 조민의 선 수행에 관해서는 島善高(2004), 『中江兆民と禪』, 『日本歴史』 3月号, 吉川弘文館, pp. 34-36을 참조.

한들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해도 바람은 불지만 망막한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²²⁾

“문명의 도정에 뒤쳐진 일개 소국” 일본은 아시아의 변경에서 굴기하
 여 자유와 우애의 정신으로 군비철폐를 단행하고, 오로지 도덕의 학문과
 공업 기술을 강구하는 “순연한 철학의 아이”가 되고자 양학신사는 호소
 한다. 이로써 “문명이라며 우쭐대는 서양 각국의 인사들이 능히 양심에
 부끄”러울 터이다. 만일 그들이 그 무력주의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침
 략해 오는 경우에도 일본은 단지 무기를 버리고 예를 갖추어 상대를 맞
 이하여 표연한 듯 황막한 듯 바람과 같이 응대코자 한다. 더 나아가 양학
 신사는, 그럼에도 상대가 무기를 휘두른다면 우리는 큰 소리로 “너희는
 얼마나 무례비도한 놈인가!”라고 일갈한 뒤 탄환에 맞아 죽음을 맞이할
 뿐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런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한 마디
 호소는 서구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통렬한 비난인 동시에 비폭력무저항
 의 철저한 도의주의 표방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양학신사의 서구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도의주의 이념
 의 주창은 다음에서 더욱 명확하다. 양학신사는 우선 서구를 가리켜 “저
 들은 문명을 자랑삼는데 그렇다면 저들에게 본디 문명의 본질인 이의(理
 義)의 마음이 없을 리 없다”고 말하며, 문명의 본질로서 ‘도리와 정의’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로부터, 소국 일본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아아! 그들은 무례하고 우리에게는 예가 있으며, 그들은 도리에
 어긋나고 우리는 도리에 맞으며, 그들의 문명은 야만이고 우리의 야
 만은 문명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는 웃으며
 인(仁)을 지키니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²³⁾

22) 『全集』第8卷, p. 182.

문명 서구와 야만 일본이라는 구도는 “힘”이 아닌 “예”(禮)와 “리”(理)와 “인”(仁)을 기준으로 할 때 전복된다. 저 야만스러운 서구가 폭력을 휘둘러도 문명 일본은 도리와 정의를 지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양학신사는 문명의 본질을 ‘도리와 정의’의 정신에 두고, 이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현재의 이른바 문명의 우열을 역전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학신사의 논의로부터는 1882년 「논외교」에서 제시한 서구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및 문명 전복의 가능성, 도의주의 외교론 주장과 공통되는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조민은 『삼취인경륜문답』에서는 더 나아가 양학신사를 통해, 그 실천에 임하여 약소국 일본이 선구가 될 때 그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문명은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 서구까지 그 사정권을 넓혀 갈 것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 첨부된 촌평 “아시아의 작은 섬에서 무형의 대국이 생긴다”로부터는, 도의주의 이념 위에 구축된 진정한 문명국으로서 정신적 대국 일본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양학신사는 이렇게 침략을 받아도 대응하지 않고 비폭력·무저항 도의주의로 사수하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국민을 탈바꿈하여 일종의 살아있는 도덕으로 만들어 후대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이다.”²⁴⁾ 양학신사의 도의주의는, 국민 교화에 의한 도덕 확립을 통해 미래에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한 정신적 기반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⁵⁾

23) 『全集』 第8卷, p. 183.

24) 『全集』 第8卷, p. 227.

25) 우에테 미치아리는, 신사군이 이와 같이 일본의 사명감을 제시하는 배후에는 “강렬한 내셔널리즘 의식”과, 선진 서구를 선도한다는 “국민적 자부심”이 엿보인다고 평가한다(植手通有(1977), pp. 82-83).

3.2. 대륙침략정책과 문명화

한편, 이상과 같은 양학신사의 민주주의와 도의주의 주창에 대해 호걸군은 “미쳤군!”이라고 질책하면서 침략주의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반론한다. 호걸군에 의하면, 양학신사의 주장은 생존을 건 문제에 대해 “학자의 이론”을 설파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적의 공격에 저항하는 일도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실제로 타파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호걸군은 서구열강을 모델로 한 부국강병책을 요청하고 군비확장에 의한 전쟁을 칭양한다.

그런데 정작 호걸군이 설파하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신’에 관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의기”(義氣)가 있기에 분노를 느끼고 상대와 “싸움”을 한다. 그리고 이기는 것을 기뻐하고 지기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현명할수록 용감하고 우매할수록 겁이 많으니, 싸움의 결과에 따라 강약우열이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의기”가 있기에 분노하고 “전쟁”을 치러 그 결과로서 강국과 약국, 문명과 야만이 결정된다. 호걸군은 전쟁이 “도의”에 기인하는 것이며 문명의 표식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 전장의 모습을 용기 충만한 망야황홀지경이며 “별천지, 신천지이니 무슨 고통이 있으랴!”라고 칭송하여 그려낸다. 용맹스럽게 쫓기던 병사들은 늦가을의 창공 아래 드넓은 평야에서 훌륭한 지휘관을 따라 신뢰하는 전우들과 함께 적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승리를 향해 전진한다. 이 전장에서 살아남아 용자로 칭송받는 것도, 전사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치는 것도 병사의 기쁨이라는 것이다.²⁶⁾

문제는, 양학신사의 도의주의를 정치이론으로 반박하고 실질적인 “정

26) 호걸군이 전쟁의 정신으로서 도의심 및 용기를 칭양하는 자세는, 신사군의 민주주의 정신 찬미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신사군이 비무장·무저항 도의주의와 그 실천으로 향하는 불굴의 정신을 설파하는 부분에 대해, 호걸군은 도의심과 용기를 전쟁의 원천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각자 주장하는 바를 사수하고자 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책”을 제시하고자 했던 호결군이, 전쟁의 정신으로서 “도의”를 칭양하는 데서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양학 신사와 남해선생은 “다소 본론에서 벗어났다”고 주의를 주니, 호결군도 “내 실수입니다. 즉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양학신사와 남해선생은 호결군의 논리일탈을 지적하고 있으며 호결군도 그러한 자신의 논리일탈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호결군은 다음과 같이 대륙침략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문명의 내용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요컨대 거액의 돈을 주고 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국으로서는 그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필히 대국의 일부를 취탈하여 우리 자신이 부국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 하늘이 도와 눈앞에 드넓은 대국 하나가 있는데 땅은 기름지고 병사와 인민은 유약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 대국이 강성했다면 우리는 이를 취탈하여 부국을 이루려 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그 대국은 무기력하여 상대하기 쉬울 때이니 소국으로서 당장 빼앗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국을 취탈하여 자신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 취탈하지 않고 자멸하는 것보다 백 번 낫지 않겠습니까?²⁷⁾

지금 약소국 일본에게 남겨진 생존의 길은 서구가 이미 축적한 “문명의 내용물”을 “돈을 주고 사들”여 일거에 강대국으로 변모시키는 방법뿐인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륙침략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마침 대륙 즉 중국이 쇠약해져 있으므로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호결군은 바로 지금 중국정벌을 시행하는 것이, 소국 일본이 문명 대국으로 탈바꿈 할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²⁸⁾ 이상과 같은

27) 『全集』 第8卷, pp. 237-238.

28) 호결군은 다른 부분에서도, 중국대륙을 ‘살이 오른 한 마리 희생양’에 비유하면서

호걸군의 양학신사 비판과 중국정벌정책안으로부터는, 조민이 도의주의 외교이념의 표명에서 현양사로 옮겨 대륙경영정책에 참가했던 것과 중첩되는 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호걸군은 중국정벌에 의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국 일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중국정벌에 따라 현재 일본에 사는 농민, 상인, 직공, 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륙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천황이 수뇌부와 군대를 대대적으로 인솔해 가서 그곳에 도읍을 정하고 웅장한 궁전을 지어 황거로 삼는다. 그 새로운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많으므로 정교를 펼치면 일거에 러시아나 영국에 버금가는 대제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호걸군은 소국 일본을 문명 대국으로 일거에 거듭나게 할 정책으로 중국정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쟁의 정신으로 ‘도의’를 언급하고, 또한 중국대륙에 새로운 일본제국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요결을 ‘정교’라고 말한다. 양학신사가 ‘도의’를 ‘문명’의 본질로서 비폭력적인 것으로 제시한 반면, 호걸군은 ‘도의’를 무사정신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침략을 통해 일본의 ‘문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각기 상반되는 주장이지만 기본정신으로 ‘도의’를 견지하고 ‘문명’의 성취를 지향한다. 즉 양학신사와 호걸군은 ‘도의’와 ‘문명’이라는 개념에 공통적으로 접속하면서, 그러나 근대 일본에서 양극을 이루는 두 정신과 두 비전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논의는 반드시 대립적이지 않고 때로는 교차하고 논리모순을 초래하면서 전개되게 된다. 이하에서 검토해 보자.

중국정벌을 통해 소국 일본이 생존해야 할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全集』第8卷, p. 234).

4. 민주주의를 향한 도정: ‘자유’와 ‘혁명’을 둘러싼 문답

4.1. 민주주의자의 자유주의 이념과 혁명관

양학신사의 논의는 서구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정신으로서 비폭력 도의주의의 이념을 주창하면서, 이를 통해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학신사는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원인으로 정치가들의 사회정세에 대한 몰이해와 자유·평등의 대의에 반하는 법률제도 제정을 지적한다. 정치가들이 사전에 사회정세를 살펴 구습을 타파하고 일대개혁을 실시했다더라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유혈혁명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양학신사는 서구문명에서 일어난 혁명들의 요인으로 자유·평등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가들을 지목하고, 그들로 인하여 유혈혁명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학신사의 입장은 현실에서 서구문명의 진보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되돌아 볼 때 흔들린다. 그는 “자유의 대의”야말로 현재 서구문명의 기초가 된 것이라고 칭송할 때, 그 “자유의 대의”가 주창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혁명”이 수반되어 있음을 시인한다. 예컨대, 현재의 영국은 찰스 1세 때 “자유의 물결이 넘쳐 인습의 제방을 무너뜨린 결과”, “대헌령”의 출현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프랑스가 부국강병하게 된 것은 “그 1789년 혁명 위업의 덕택”이라고 평가한다. 즉 양학신사는 혁명의 과정이야말로 현재 서구와 같이 선진문명과 민주주의를 향유 가능하게 하는 데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한 독일도 18세기 융성한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2세가 무력

을 사방에 떨친 이래 점차 강대해졌지만, 프랑스혁명의 대의가 아직 침투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사분오열하여 마치 밧줄이 풀어진 장작과 쪼더미의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1세가 공화국 지휘관이 되어 혁명의 깃발을 펼치며 빈과 베를린 등지를 원정하기에 이르러, 독일 인민은 비로소 자유의 원기를 흡수하고 우애의 자양분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형세가 일변하여 풍속이 개선되고 빠르게 발전하여 오늘날의 융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²⁹⁾

양학신사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원정을 자유주의와 서구문명을 성숙시키는 데 불가결한 과정으로 제시하고, 독일은 그러한 “프랑스혁명의 대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자유·박애 정신을 흡수하여 오늘날의 융성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도의주의적 자유주의 이념을 주창했던 양학신사는, 현재의 서구가 구축해 온 문명의 역사를 시야에 넣을 때 그 문명화 과정에서 자유주의가 혁명을 수반해 온 것을 인식하고 무력이나 원정까지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자유주의 이념과 혁명사 이해 사이에 드러난 모순을 양학신사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돌연 지금까지의 자유와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중단하고, 자유와 인간 활동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한다. 그리고 인간 활동에서 자유의 의의를 술과 효모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전제주의 사회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 활동을 활성화, 다양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파하기 시작한다.³⁰⁾ 이 단락에는 “한학선생이여 일전어(一轉語)를 내리소서!”라는 촌평이 붙어 있다. 이 촌평에는, 도의주의적 자유주의 정신에 근거한 문명을 이념으로서 추구

29) 『全集』 第8卷, pp. 191-192.

30) ‘자유’를 인간 정신 및 활동에 필요한 원동력, 추진력으로 위치시키는 이해는, 조민의 자유론의 출발점이다. 1881년 『東洋自由新聞』에서도, 자유를 “生氣”에 비유하면서 자유가 있기에 비로소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인 욕구의 충족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 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발전을 넘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全集』 第14卷, pp. 13-15).

하면서도 문명의 실천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자유주의가 혁명주의를 수반해 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조민의 당혹감이 드러나 있는 듯하다.

그런데 양학신사는 더 나아가, 영국보다 뒤늦게 자유의 도정에 오른 프랑스가 일거에 민주제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자유평등주의의 열기에 의한 것이라고 칭송하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랑스인들은 루이 16세의 머리를 베고 그 뜨거운 피를 길어서 온 유럽 국왕들의 머리 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옷과 신, 무기와 식량도 없었지만 드디어 점차 분연히 전진하여 사람들은 머리 위에 모두 평등이라는 큰 후광을 쓰게 되니, 적의 탄환으로도 칼로도 상처 입힐 수 없었습니다. 일거에 완전히 모든 나라들의 제도를 일변시켜 평등의 제도를 이루고자 한 것은 마치 광기로 전복된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나 할까요. 나폴레옹 1세가 백전백승, 천전천승하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의 군대가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은 전략이 기발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당시 프랑스인이 평등전병(平等顛病)의 열기에 흥분하여 체온과 정신 모두 보통사람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³¹⁾

주목하고 싶은 점은 양학신사가 프랑스혁명에서 민중의 자유평등을 향한 열기를 “광전”(狂顛), “평등전병의 열기”(平等顛病の熱氣)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점이다. 양학신사는 열광적인 자유·평등의 이념과 투쟁이 있었기에 비로소 루이 16세를 기요틴에 처형하고 프랑스혁명을 성취했으며, 또한 나폴레옹 1세의 유럽원정을 성공시키고 전제타도와 민주제수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서는, 그 후 프랑스인들은 한때는 나폴레옹의 깃발 아래 신민이 되어 후퇴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일어서서 “루이, 필립을 배격하고 샤를 10세

31) 『全集』第8卷, p. 209.

를 그리고 나폴레옹 3세를 배격하니 민주정체가 성립되었다”고 칭송한다. 양학신사에 의한 비폭력·무저항의 도의주의와 그에 근거한 자유주의 정신의 주장은, 혁명사를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으로 파악할 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있는 모순을 다시금 깨달은 양학신사는, 열변을 돌연 중단하고 “제가 어쩌다 흥이 올라 말하다 보니 크게 논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변명하면서, 논리파탄을 수습하려 한다. 조민이 1882년 이래 주창했던 도의주의 이념과 실천 문제에 대해, 『삼취인경륜문답』 집필 당시의 시점에서 가한 비판이 양학신사의 논리모순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양학신사는 이렇게 혁명사를 고찰한 다음 거듭 “19세기 오늘날”을 생각하고자 한다. 우선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며,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는 작열하는 전화 가운데 순진하게 놀고 있기에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는 “가련한 어린애”에 비유한다. 한편, 중국, 아시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정신은 무더서 예민하지 않고 수족은 둔중하여 민첩하지 않으나 큰 덩치만 믿고 남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그 대국인가? 신체는 허약하고 사기는 유약한 탓에 서로 모여서 한패를 이루었지만 때때로 다른 악동이 와서 괴롭히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의 섬들인가? …… 쫓, 그대는 그 가운데 한 신동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능력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토록 눈이 어두운지요?³²⁾

양학신사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과 거기에서 희생되는 약소국을 구별하는 가운데, 아시아를 다시 “그 대국”과 “섬들”로 구분한다. 중국은 완미고루(頑迷固陋)하고 둔중하며 덩치만 믿고 전쟁에 뛰어들려 한다.

32) 『全集』第8卷, p. 222.

이에 비하여 나머지 “아시아의 섬들”은 약소하고 기력도 없기에 모여서 상호 부조하려 하지만 “다른 악동”에게 침탈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 문명의 자유주의와 혁명사를 설파한 다음 다시 아시아를 바라보는 양학 신사의 시선에는 일종의 냉담함이 서려 있다. 아시아에는 문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유주의, 혁명주의의 의지가 없다. 다만 무기력함에 젖어 있을 뿐이며 게다가 중국은 무력주의로 질주하려 한다. 양학신사의 침묵 “……”에서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절망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양학신사는 다시 일본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한 신동”의 등장을 고대하고 그에게 미래를 위탁하고자 한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도의주의, 자유주의를 실천으로 이끌어 정신적 문명을 실현시킬 아시아의 ‘신동’으로서, 일본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4.2. 침략주의자의 자유·혁명 이해와 자기희생의 정치학

한편, 호걸군의 논리는 일본의 내정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더욱 착종된다. 호걸군이 지적하는 메이지 일본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라 전체가 문물, 격식, 풍습, 감정,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양분화된 현상이다. 특히 “자유 의의”와 “혁신의 설”에 관한 이해에서 양분화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형성된 두 파를 호걸군은, 서양의 학문, 도덕, 법률, 경제 이론을 중시하고 티에르(L. Thiers), 글래드스톤(W. Gladstone)을 숭배하는 “호신원소”(好新元素)와, 한학과 무사의 세대로서 비분강개를 일삼으며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등을 칭양하는 “연구원소”(恋旧元素)로 호명한다.³³⁾

호걸군은 물론 “연구원소”를 자칭한다. 그런데 그가 보내는 비난의 화살은 “호신원소”가 아닌 자신이 속한 “연구원소”를 겨냥하고 있다.³⁴⁾

33) 이 단락에는 “구(舊) 자유당과 개진당의 면면들”이라는 촌평이 붙어 있다(『全集』 第8卷, p. 243).

그들은 ‘자유’란 호방한 기개를 꺾지 않는 행위라 여기고 ‘평등’이란 무기를 휘둘러 파멸시키는 일이라 여겨 비분강개하기를 기뻐하고, 난해한 법률학과 치밀한 경제학 등은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이들에게 프랑스 혁명사를 읽게 하면 입법의회 및 국민공회가 상하 분쟁 사이에 불후의 장전을 만들어 19세기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사실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고, 로베스피에르나 당통 무리들이 앞 다투서 찌르고 베며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통쾌하다고 소리 지르며 그들을 따라하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지경입니다.³⁵⁾

무사의 후예인 “연구원소”들은, “자유”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고 “평등”이란 기득권자들을 무찌르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도 “입법의회 및 국민공회가 상하 분쟁 사이에 불후의 장전을 만들어 19세기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로베스피에르나 당통들의 급진적 혁명주의에만 주목한다. 호걸군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연구원소”의 자유주의와 프랑스 혁명사 이해의 결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를 말하며 혁명의 성과로서 국회와 헌법에 착목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호걸군은 자신이 속한 “연구원소”에 대해 자유와 혁명이 단순히 무력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그 원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를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멸의 장전”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 헌법제정 국민의회에 의한 1791년 헌법이 아니라 국민공회에 의한 1793년 헌법 즉 민주제를 철저화한 자코뱅헌법인 점을 생각할 때 호걸군

34) 이 점과 관련하여 요네하라 겐은 “호걸군은 신사군에 반대하지만, 뒤뜰린 방식으로 신사군의 견해를 보충하는 형태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米原謙(1989), 『兆民とその時代』, 昭和堂, p. 143).

35) 『全集』第8卷, p. 243.

의 지향은 더욱 선명해진다.³⁶⁾

그리고 호걸군의 “연구원소” 비판은 그들의 ‘자유민권’ 이해에 관해 언급할 때 더욱 신랄해진다.

그 후 자유민권설이 외국에서 들어오자 그들은 즉시 일제히 그 설에 경도되어 결집하여 당의 깃발을 내걸고, 어제만 해도 무사였던 모습을 단숨에 바꿔 엄연한 문명의 정치가가 된 것입니다. 아아!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문명의 정치가가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전사(戰死)하는 걸 최고로 여기는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 답답함을 해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자유민권설을 듣고는 그 속에 무언가 과감하고 강성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생각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전사주의(戰死主義)와 닮았다. 봉건유물인 전사주의에 대체할 것으로 외국에서 들여 온 민권주의가 상책이다”라고요.³⁷⁾

호걸군에 의하면, “연구원소”는 자유주의와 프랑스 혁명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까닭에, “자유민권의 설”을 접해도 그것을 예전 무사들의 전사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격렬한 부분에만 주목한다. 그리고는 결사를 외치며 당을 만들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문명의 정치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국회를 좋아하는 것은 큰 목소리로 고함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며 또한 재상과 대신들에게 맞설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혁’을 좋아하는 것은 친구와 선악에 관계없이 단지 파괴를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다. 호

36) 미야무라 하루오는 이러한 호걸군의 프랑스 혁명사 이해를 언급하면서, 『삼취인경륜문답』에 보이는 조민의 프랑스 혁명사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민이 ‘1793년 헌법’에 ‘프랑스혁명’의 최대의 달성을 인정하고자 했다는 것은 『삼취인경륜문답』의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기도 했던 것이다”(宮村治雄(1996), 『開國經驗の思想史』, 東京大學出版會, p. 41).

37) 『全集』第8卷, p. 244.

결군은 “연구원소”의 자유민권에 대한 이해의 천박함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그 몰이해에 따른 경거망동을 비판함으로써 거듭 자신의 입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³⁸⁾

이상과 같은 호결군의 자기비판은 중국정벌에 의해 신제국을 수립함에 따라, 남겨진 소국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더욱 가속화된다. 새로운 대국을 손에 넣었으니 남겨진 소국은 뒤돌아 볼 가치도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다고 하면서도, 호결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 소국은 다른 나라가 와서 가져가 버리게 됩시다. 러시아가 먼저 오면 러시아에게 주고 영국이 먼저 오면 영국에게 주면 됩니다. …… 아니지 아닙니다. 이견 상책이 아닙니다. 옛 소국에는 민권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있었죠. 그들은 대체로 군주도 군대도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주와 군대는 모두 신대륙으로 이동할 터이니, 옛 소국을 모두 민권주의자와 민주주의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습니까?³⁹⁾

호결군은 남겨진 소국의 처리 방법으로 지금까지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나 영국에 던져줄까 잠시 생각한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서, 그보다는 이렇게 군주도 군대도 없어진 소국 일본을 “민권주의자, 민주주의자”에게 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호언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호언이 아님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38) 이 단락에는 “구(舊) 자유당”에 관한 흔평이 붙어 있다. 여기에서 조민이 호결군을 통해 비판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구 자유당 과거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호결군의 자유주의 및 자유민권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나다이 나다는 호결군을 신사군과 더불어 “자유민권주의자”로 거론하고 있다(なだいなた(2000), 『TN君の伝記』, 福音館書店, p. 294).

39) 『全集』第8卷, p. 235.

호걸군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연구원소”와 “호신원소” 중 한쪽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연구원소”를 “암종”(癌腫), “호신원소”를 “생육”(生肉)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속한 전자의 제거를 요청한다. 양학신사가 그 언어도단을 지적해도, 호걸군은 다만 웃으면서 “생육”의 생존을 위해 “암종”을 절단할 필요성을 설파할 뿐이다. 호걸군은 자기비판으로부터 초래된 논리의 파탄을 자기 부정으로써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⁰⁾

이 지점에서 중국정벌정책은 새로운 ‘정책’으로 부상한다. 호걸군은 “나와 같은 자들 또한 사회의 암종 중 하나다. 스스로 할거하여 앞으로 국가 생육에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며, 연구원소의 제거 방법으로 그들을 중국정벌 원정군으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성공하면 그곳에 “암종사회”를 설립하는 것이 되며 실패해도 국내의 개혁을 방해하는 연구원소를 말소하는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나라를 위해 암종을 도려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중국정벌정책은 이러한 발상에서, 조민이 촌평으로 “정치적 외과위가 출현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연구원소의 전사주의를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고 호신원소를 소생시키는 정책으로 부상하는 것이다.⁴¹⁾

40) 이러한 호걸군의 모순에 대해 우에테 미치아리는, 호걸군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연구원소”를 절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파한 점,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호걸군과 신사군은 반드시 대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植手通有(1977), p. 89). 또한 마에다 아이는, 근대일본정신사의 암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계보로서 “자기희생의 아이러니”라고 표현한다(前田愛(2001), p. 79).

41) 이러한 호걸군의 사고는, 만년의 조민이 국민동맹회에 참가했던 것과 같은 사고였다고 할 수 있다. 조민의 국민동맹회 참가에 대해 슈스이는, 러시아 정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국주의자 단체에 참가하는 것은 “자유평등의 대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힐문했다. 그에 대해 조민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다. 이긴다면 대륙에 세를 넓혀 동양의 평화를 지지할 수 있으며, 패한다면 정부와 민간 모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비로소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잘 타면 번벌(藩閥)을 소멸시키고 내정을 혁신시킬 수 있을 터이니, 좋지 않느냐.”(幸徳秋水(1902); 『全集』 別卷, p. 462). 호걸군에

이에 의하여 그 중국정벌정책에 의해 획득할 수 있는 신제국의 찬란한 비전은 한편으로 “암종사회”의 이름으로 불길한 것이 된다. 그리고 호걸군의 자기비판과 자기부정을 상징한 중국정벌정책은 성공하여 그곳에 “암종사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국 일본은 민주주의자들에게 남겨지며, 실패하여 호걸 무리들이 사멸해 버리는 경우도 여전히 민주주의자에 의한 소국 일본의 미래가 약속된다. 호걸군이 제시하는 소국 일본의 생존 방안은, 국내 자유민권파 가운데 과격파의 제거를 전제로 하는 중국정벌정책과, 그 주된 효과로서 ‘자유’와 ‘혁명’ 이해에 기초한 민주주의 소국 일본의 재건을 지향해 가는 그 지점에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5. 혁명적 자유의 일본적 전환: “은사적 민권”의 의미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양학신사는 민주주의 정신과 비폭력·무저항 도의주의를 주창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논리를 착종시키면서까지 민주화, 문명화의 실천과정에 수반하는 자유주의와 혁명주의의 불가분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걸군은 중국정벌을 주장하는 한편 그 정책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기비판, 자기부정 및 자기희생을 전제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학신사의 논리 모순으로부터는, 1882년의 조민이 경험했던 도의주의 이념과 실천 사이의 괴리 및 그러한 과거의 자기 사상에 대해 이후의 조민이 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호걸군의 자기비판 및 논리파탄과 그 모순을 죽음으로써 타파하고자 하는 자세로부터는, 현양사시절의 조민이 당시의 자기 자신과 그 일행에게 보내는 비판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유주의, 혁명주의 이념과 실천의 괴리를 통감한

게 보이는 대륙정벌 및 자기희생에 의해 내정개혁을 도모하는 사고는, 실제 조민의 사고와 매우 근접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887년 조민의 고뇌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해선생은 이러한 양학신사와 호결군의 논의에 대해 전자가 아찔하게 강한 술이라면 후자는 극약이라고 비유하면서, 두 사람 각자가 노력하여 실천하길 바라며 노인인 자신은 지켜보리라 기약하면서 말을 맺으려 한다. 이러한 논평 아닌 논평을 들은 양자는 거듭 선생의 의중을 묻는다. 이에 선생은 마지못해 두 주장 모두 극단적이라고 평가하고 원인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현실인식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금의 국제정세를 생각하건대 방위주의 우호외교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금의 일본이라는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건대 입헌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선생은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학신사의 논의를 다음 세 점에서 비평한다. 첫째, “진화의 리”란 양학신사가 생각하듯 절대적 법칙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 그 자체이다. 사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론이나 법칙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 본디 양학신사의 민주제 주장에는 “정치の本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정치の本지”란 “국민의 의향”과 “국민의 지식”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전제를 취하는 국가가 입헌제의 단계를 건너뛰고 민주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국민에게 민주제를 강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셋째, 민권에는 밑에서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회복적 민권”(回復的の民權) 외에도 위에서 헤사하는 “은사적 민권”(恩賜的の民權)이 있다. 일본이 반드시 영국이나 프랑스식 “자유권”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 일본에서는 “은사적 민권”을 도덕과 학문을 기초로 함양하여 차츰 “회복적 민권”에 가까운 것으로 바꾸어 가면 된다는 것이다.⁴²⁾ 이 부분에 조민은 “이 단

42) “회복적 민권”과 “은사적 민권”의 의미에 대해 히지카타 가즈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복적 민권’과 ‘은사적 민권’을 준별하는 이론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주의에 대한 메이지 20년 시점

락 문장은 조금 자랑스럽다”라는 촌평을 붙였다.⁴³⁾

그리고 선생은 미래에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양학신사에게 부여한다. 선생에 의하면 사상은 씨앗, 사람의 뇌는 밭이다. 사람들 사이에 사상을 공유하고 보급하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국가사업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따라서 양학신사의 “사상”을 먼 미래에 “사업”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사상의 씨앗을 사람들의 뇌리에 뿌려 세상에 퍼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면 “기백년”의 세월이 지나 비로소 사상의 풀과 꽃은 나라 안에 우거질 것이며 드디어 열매로 수확할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선생은 현재로서는 입헌제를 취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먼 미래에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개화를 기대하며 그 사상의 보급과 육성을 양학신사에게 위탁한 것이다.⁴⁴⁾

한편, 선생은 호걸군의 중국정벌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으로 다음을 지적한다. 첫째, 중국은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이웃나라이며 특히 미래의 일본에게는 큰 시장으로 “무진장한 이익의 원천”이 될 터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으로 상호 부조하여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이 일본에 적대심을 가지고 강대국과 제휴하여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중국의 일본침략설은 여론에 의해 조장된 유언비어이다. 게다가 선생이 생각하기에 현재 중국은 “서구문명의 원기”를 흡수하여 각 방면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흥의 징조가 보인다. 특히 풍부한 자력으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근대제도의 근대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용이한 상대가 아니다. 호걸

의 비판과 변혁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설정한 것이었던 것이다(土方和雄(1958), p. 167). 조민이 메이지 20년의 현실에 기반하여 ‘은사적 민권’을 장려했던 것, 그리고 장차 그 ‘은사적 민권’을 ‘회복적 민권’으로 바꿔 나간다는 방향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43) 『全集』 第8卷, p. 261.

44) 『全集』 第8卷, p. 262.

군의 중국정벌정책은 여론에 선동된 것이며 실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우호외교, 방어주의 외교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⁴⁵⁾

즉 선생은 양학신사의 논의에 대해, 진화론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고 민주제 주장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면서, 메이지 일본이라는 현실사회와 국민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설파하며 입헌제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서구식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을 비판하고 “은사적 민권”의 향유를 권유한다. 그리고 호결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중국정벌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선생의 비평으로부터는 1887년의 조민이 과거 자신의 이상적 도의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시선, 그리고 현양사시절의 자신에게 보내는 비판적 시선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선생의 비평에 대해 양학신사와 호결군은 거듭 선생의 명확한 의견을 촉구한다.⁴⁶⁾ 그러나 이번에도 선생은 예의 입헌제와 자위주의에 기초한 우호외교 주장을 반복할 뿐이다. “남해선생 얼버무리다”라는 촌평이 붙어있는 곳은 이 부분이다. 이러한 선생의 진부한 정론에 두 사람이 실망감을 감추려 하지도 않고 실소하자 선생은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는 데 기론을 펼칠 수는 없다고 호통 치며 “내가 듣해서 시사에 통달하지 못하여 논의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점이 많으니, 두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기에 부족했다”고 말한다. 선생은 자신의 비평이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선생의 호통을 듣고서야 둘은 납득했는지 어떤지 다시 선생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찰나 새벽을 알리는 계명이 들려온다. 이와 더불어 3인은 논의의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자리를 뜬다.

선생이 응답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양학신사와 호결군이 자기비판, 자기부정을 감내하면서까지 거듭 묻고 있었던 문제를 요약하면

45) 『全集』 第8卷, p. 264 이하.

46) 『全集』 第8卷, p. 270.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즉, ‘도의’란 대의의 관철을 위해 비폭력주의를 고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력행사도 불사하는 것인가? ‘자유’란 비폭력 도의주의에 의해 도달하는 경지인가 아니면 혁명을 통해 쟁취하는 것인가? ‘혁명’은 자유주의 실천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인가? 어떤 선택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해 갈 것인가? 이렇게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물은 자유, 도의, 혁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선생은 ‘혁명’을 ‘은사’로, ‘자유’를 ‘민권’으로 대체하여 “은사적 민권”의 향유와 함양을 제시한 것이다. 두 사람의 불만은 바로 이 점에 있었으며, 선생은 고민 끝에 내놓은 의견을 평범하다고 비웃음을 받자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우고 또한 자신의 학식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겸양의 언사로, 두 사람의 반론을 봉쇄한 것이다. “남해선생 얼버무리다”라는 촌평에는 근대일본의 나아갈 길에 대해 대답을 내놓지 못한 조민선생의 고백과 자조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6. 맺음말

『삼취인경륜문답』에서 조민은 등장인물 3인을 통해 자신의 사상영위의 족적을 투영시키면서 자유, 도의, 혁명의 이념과 실천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험한 갈등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장을 마련했다. 거듭 절실한 물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답을 내어놓지 못한 채, 이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가야만 하는 문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민은 3인을 통해 자유, 도의, 혁명에 관해 지속적으로 되묻는 행위 자체가 최종적으로 미래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도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 도정에 어떠한 모순 또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각각 문제군 전체를 끌어안고 되물으면서 다양한 방향성을 띠고 나아가는 자체가 민주주의 가능성을 배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념과 실천 사이를 횡단하는 자유, 도의, 혁명의 다양한 배치와 조합에

의해 어떤 민주주의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그 가운데 조민이 ‘혁명적 자유’를 끝내 언명하지 않고 주저하며 그러나 다소 자부심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 ‘은사적 민권’이다. 루소 『민약론』의 사상적 계승자이자 자유민권운동의 사상적 지도자인 조민에 의해 제시된 ‘은사적 민권’은, 장차 서구의 ‘혁명적 자유’와 가까운 것으로서 ‘회복적 민권’으로 전환해 갈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자유민권사상 그 자체의 종언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자유민권과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맹아들이 천황제 체제 하에 수렴되어 가는 그 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은사적 민권’은 자유민권사상이 천황제 체제와 타협한 보수적 개념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취인경륜문답』을 이상과 같이 자유, 도의, 혁명 개념을 둘러싼 논의로 다시 읽는 작업은, 조민 자신을 비롯한 자유민권파의 사상적 전환 또는 갈등 문제를 넘어 근대 일본의 향방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일본의 대외적 위기가 서구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의해 초래된 것인 바, 이에 대해 호걸군은 일본 자신이 아시아에 대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취함으로써 대항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지향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 양학신사는 비폭력·무저항 도의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인류의 보편 이상을 주창하면서 정신적 문명국을 지향하지만, 이는 이미 내셔널리즘적 사고가 전제된 것이었다. 근대 국가의 안팎 그리고 일국 내의 좌우 진영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각 권역을 전복시킨다. 『삼취인경륜문답』의 자유, 도의, 혁명에 관한 논의들은 ‘근대 일본’이 바야흐로 형태를 갖추어 가던 당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문제들이 어떻게 착종되기 시작했는지, 그 맹아기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자 료】

- 나카에 초민(1887),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2005), 『삼취인경륜문답』, 소명출판.
- 幸徳秋水(1902), 『兆民先生』, 博文館; 松本三之介, 松沢弘陽, 溝口雄三, 松永昌三, 井田進也編(2001), 『中江兆民全集』 別卷, 岩波書店.
- 『國民之友』 5号, 1887年 6月 15日.
- _____ 3号, 1887年 4月 15日.
- 高橋五郎, 『政事家漫評』, 『國民之友』 8号, 9月 10日.
- 徳富蘇峰, 『妄言妄聽』, 『國民新聞』 1895年 12月 13日.
- 『雜評』, 『一大活眼』 1号, 1889年 6月, 活眼社.
- 中江兆民, 『論外交』, 『自由新聞』 38・40・42号①, 1882年 8月 12・15・17日; 『中江兆民全集』 第14卷.
- _____ (1887), 『三醉人經綸問答』, 集成社書店; 『中江兆民全集』 第8卷.
- _____ (1887), 桑原武夫, 島田虔次 訳注(1999), 『三醉人經綸問答』, 岩波文庫.
- _____ (1882), 『民約譯解』, 佛學塾出版局; 『中江兆民全集』 第1卷.

【논 저】

- 박홍규(2005), 「나카에 초민의 평화이념과 맹자」, 『정치사상연구』 11권 2호.
- _____ (2005), 「나카에 초민의 평화이념: 민주제·연방제·군비철폐론」, 『한국정치학회보』 39권 5호.
- 이혜경(2003), 「나카에 초민의 이상사회: 동양과 루소의 만남」, 『철학사상』 17권.
- 飛鳥井雅道(1999), 『中江兆民』, 吉川弘文館.
- 井田進也(2000), 「『東洋のルソー』中江兆民の誕生」, 『中江兆民のフランス』, 岩波書店.
- 植手通有(1977), 「中江兆民における民権と国権」, 『中江兆民の世界』(木下順次・工藤文夫 編), 筑摩書房.
- 内田義彦(1977), 「ユートピア物語としての『三醉人經綸問答』」, 『中江兆民の世界』.

- 上山春平(1983), 『兆民の哲学思想』, 『中江兆民の研究』(桑原武夫 編), 岩波書店.
桑原武夫(1977), 『兆民への近接』, 『中江兆民の世界』.
島善高(2004), 『中江兆民と禪』, 『日本歴史』 3月号, 吉川弘文館.
なだいなだ(2000), 『TN君の伝記』, 福音館書店.
西部邁(2013), 『中江兆民－百年の誤解』, 時事通信出版局.
土方和雄(1958), 『中江兆民－近代日本の思想家2』, 東京大学出版會.
松沢弘陽, 井田進也(2001), 『解題』, 『中江兆民全集』 第8巻.
松永昌三(1993), 『中江兆民評伝』, 岩波書店.
前田愛(2001), 『『三酔人経綸問答』のテキスト構造』, 『中江兆民全集』 月報.
丸山真男(1977), 『日本思想史における問答体の系譜』, 『中江兆民の世界』.
宮村治雄(1996), 『開国経験の思想史』, 東京大學出版會.
米原謙(2001), 『『三酔人経綸問答』を読む』, 『兆民をひらく』, 光芒社.
_____(1989), 『兆民とその時代』, 昭和堂.

원고 접수일: 2015년 4월 2일

심사 완료일: 2015년 4월 21일

계재 확정일: 2015년 5월 1일

ABSTRACT

Re-reading Nakae Chōmin's *A Discourse by Three Drunkards on Government*

- Focusing on Liberty, Morality and Righteousness, Revolution
and a Vision of Democracy

Lee Yeaann*

Nakae Chōmin's *A Discourse by Three Drunkards on Government* (三酔人経綸問答, 1887), according to past research, presents pacifism, military expansionism, and neutral diplomacy—through three characters, a Gentleman of Western Learning, the Champion of the East, and Master Nankai—as a means by which the small state of Japan can maintain its independence faced with the imperialism of the West. However,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se three characters with Chōmin in the past and present, based on a series of experiences that he had over time. It also aims to examine three arguments in this book with the dual structure of self-criticism, which is composed of Chōmin's criticisms of his own ideas of the past, and also of his own ideas of each period of time. Re-reading the book from this perspective, one can note that Chōmin makes repetitive self-criticisms through the characters and persistently continues the dis-

*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cussion, even to the point of sacrificing logic. Then, one can see that the main theme of the book is formed around how modern Japan should understand and practice liberty, morality and righteousness, and revolution as it journeys toward democracy. The “given rights” proposed after the heated debate of the characters as an alternative to “revolutionary liberty” helps the reader understand how the idea of liberty was perceived in modern Japan, in terms of conflicts and limitations, as well as how the idea was deeply rooted and maintained in discussions of liberalism and democracy in the country afterwards.

